동우

발행인 김재호 | **편집위원** 김호경(편집국) 김윤진(미래전략연구소) 임희조(AD본부)
손수영(마케팅본부) 김승현(문화사업본부) 강흠민(경영지원국) 김경일(재경국)
송수하(편성전략본부) 신호영(스튜디오D) 구가인(보도본부) 이민종(전략기획본부)
강혜빈(콘텐츠사업본부) 황구현(경영지원본부) 김도윤(동아E&D) 최종범(채널A비앤씨) (편제순)
제작 경영총괄팀(구내 0824)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1 동아미디어센터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vol. 307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 2면 여름 채널A 킬러 콘텐츠 연이어 출격 | 3면 민간 최초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 공개한 '크랙' | 4면 '동아미디어그룹과 함께하는 저널리즘의 지평' 연세대 강의, 높은 호응 속 첫 학기 마무리

종편 최장수 예능 이제 만나러 갑니다 '뉴스보다 깊이 있는 시사 예능'으로 진화하며 디지털도 접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이만갑 700회 특집 방송엔 탈북 엘리트 외교관 4인이 출연해 타 프로그램이 깊이 있게 다루기 힘든 '김정은의 속사정' '북한의 4대 세습 전망'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③, ④, ⑤ 방송 초기 야외에서 이산가족을 인터뷰하던 이만갑은 탈북민들과 함께 하는 스튜디오 토크쇼로 변화하며 북한 문화 등을 소개하는 콘셉트를 이어갔다.

올 6월 1일 방송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이만갑)〉 700회 특집엔 탈북 엘리트 외교관 4인이 출연했다. 김일성의 불어 통역 담당부터 김정은 금고지기의 사위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인지' 등 북한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주애(主愛)'의 한자 이름 뜻이 최초 공개되기도 했다. 출연진 구성과 포맷, 콘텐츠 측면에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이만갑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2011년 12월 4일 방송을 시작한 '이만갑'이 종합편성채널 최장수 예능 프로그램의 지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건 끊임없는 변화로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서 탈북민의 애환과 북한 실상을 전하는 '탈북민 토크쇼'로 변신한 뒤 '종합 시사 예능'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이제 '이만갑'은 교수, 정치평론가, 기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탈북민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글로벌로 전파한다는 진정성과 파급력을 인정 받으며 고위급 탈북민들이 출연을 결심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700회를 넘어 800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만갑' 제작진은 "많은 시청자들이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끊임없이 진화하며 700회 돌파

채널A 개국과 함께 시작한 '이만갑'은 이산가족을 찾아 인터뷰하고 그들의 소망을 담은 타임캡슐을 만드는 포맷을 선보였다. 이어 2012년부터는 탈북 여성들의 스튜디오 토크쇼 중심으로 변화했다. 목숨을 걸고 탈북에 성공한 이들의 스토리는 시청자들을 웃고 울리며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정부 관계자들도 "탈북민에 대한 이미지가 '이만갑'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였다.

실제로 2012년 통일부는 "통일과 남북 문제라는 어려운 주제를 참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간 점이 인정된다"며 '이만갑'에게 통일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표창한 것은 '이만갑'이 최초다.

'이만갑'은 북한 노래, 춤, 요리 등의 문화를 소개하며 남북한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데도 기여했다. 대표적인 남북 소통 버라이어티로 자리를 잡으며 '이만갑'과 출연진들의 인기도 함께 올라갔다. 출연진들은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데 앞장섰고 영국 BBC, 미국 워싱턴포스트, 일본 NHK 등 해외 언론들도 탈북민들과 '이만갑'을 주목했다. 2016년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도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이만갑'을 언급했고, 이듬해에는 '이만갑'에 출연해 특별 대담을 갖기도 했다.

이처럼 시청률과 화제성을 모두 잡으며 종편 프로그램 최초로 방송 10년을 돌파한 '이만갑'은 최장수, 최초 등의 수식어에도 안주하지 않았다. 남북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다양한 글로벌 이슈로 콘텐츠를 확장하며 또 한 번 변신에 나선 것. 〈먹거리 X파일〉 〈외부자들〉 등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김군래 PD 등이 새로 투입되며 "뉴스보다 깊이 있는 시사 예능"을 '이만갑'의 새로운 목표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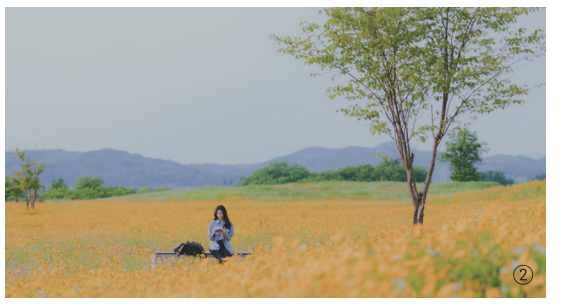
이에 따라 출연진은 탈북민과 정치평론가, 외교관, 교수, 기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바뀌었다. 방송인 김종민을 투입해 대중성도 확보했고, 콘텐츠 측면에선 북한 관련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 집중했다. 김정은 일가의 생활을 조명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입체적으로 전망하는 식이다. 콘텐츠 영역도 넓혀 인도와 파키스탄의 78년 갈등사를 조명하며 분단 국가가 겪는 정치적 긴장감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디지털에서도 눈부신 성과

뉴스 못지않게 입체적이고 깊이 있는 포맷은 시청률은 물론 디지털 영역의 성과로도 이어졌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만갑의 유튜브 영상 누적 조회수는 약 7억 6000만 회에 달한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업로드된 영상 중 조회수 '톱10'의 영상 조회수만 약 3310만 회에 달할 정도로 영상 소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중 가장 조회수가 높은 '북한 마지막 전투기 귀순자, 이철수 편(708만 회)'은 북한 조종사의 삶과 귀순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실감나게 다뤄 "영화보다 더 영화같다"는 등의 댓글이 4000개 넘게 달리기도 했다.

종편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이만갑' 제작진은 탈북민이 젊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만갑'이 또 한 번 도약할 기회로 보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태어난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남북 미래 세대의 이목을 끄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김 PD는 "시장 경제에 익숙한 장마당 세대가 활발히 활동하면 북한에 대한 편견을 깨는 데 도움이 되고 이만갑의 세계관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신희철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정자영



①, ②, ③ 채널A가 새로 선보이는 여름 '힐링 트립' 드라마 〈여행을 대신해 드립니다〉는 국내외 아름다운 절경을 담아낸 영상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름 채널A 킬러 콘텐츠 연이어 출격

힐링 드라마 '여행을 대신해 드립니다'-'개통령' 강형욱의 복귀작 '개늑시' 8월 첫 방송

2025년 여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 잡을 채널A의 '킬러 콘텐츠'들이 연이어 출격을 앞두고 있다. 채널A의 신규 드라마 〈여행을 대신해 드립니다〉와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의 복귀작으로 기대를 모으는 신규 리얼리티 예능 〈개와 늑대의 시간(이하 '개늑시')〉이 그 주인공이다.

여름 힐링 드라마 '여행을 대신해 드립니다'

채널A의 새 드라마인 '여행을 대신해 드립니다'가 8월 2일 토요일 오후 9시 20분에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여행을 대신해 드립니다'는 인생에서 한 번도 센터에 선 적이 없는 아이돌 출신 여행 리포터 강여름이 의뢰받은 여행을 대신해 주며 진정한 성공과 삶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그린 '힐링 트립' 감성 드라마다. 공승연, 유준상, 김재영, 홍수현, 오현중 등 탄탄한 연기력과 매력을 겸비한 배우들이 작품에 참여했다. 여기에 더해 제작진은 부여, 포항, 진주 그리고 일본 등 국내외 아름다운 절경을 고스란히 담아낸 압도적인 영상미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지난달 26일에 공개된 1차 티저 영상을 시작으로 연이어 공개된 스틸컷과 포스터 역시 '대리 여행'이라는 신선한 소재를 생생하게 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실제로 각종 SNS에서도 "휴가철에 딱 맞는 작품이다", "영상미가 너무 예쁘다" 등 뜨거운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강형욱의 복귀작 '개늑시'

이어 8월 5일 화요일 오후 9시 20분에는 채널A의 신규 예능 프로그램인 '개와 늑대의 시간'이 베일을 벗는다. '개늑시'는 반려견의 단순한 훈육을 넘어 보호자의 태도와 환경을 함께 점검하며 반려생활 전반을 돌아보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반려견 행동 전문가인 강형욱 훈련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견 진단에 나선다. 프로그램명인 '개와 늑대의 시간'은 프랑스의 관용 표현으로 해질녘 개와 늑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계의 시간대를 뜻한다. 반려견과 견주가 변화의 기로인 개늑시에 선 순간을 지혜롭게 풀어가고자 하는 제작진의 의도가 담겼다.

이달 8일에 공개된 '개늑시'의 첫 티저 영상 또한 벌써부터 화제다. 강 훈련사의 예능 복귀작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번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들은 댓글로 "오래 기다렸다", "개통령이 드디어 돌아온다" 등 기대에 찬 반응을 보였다. 강 훈련사의 파트너로는 국민 MC 김성주가 함께 한다. 김성주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비(非) 반려인' 입장에서 시청자의 궁금증을 대신 전달할 예정이다. 개늑시를 이끄는 스튜디오E 1CP의 한지인 PD는 "기존의 문제견을 훈련하는 예능과는 다른 새로운 포인트들을 담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첫 촬영을 시작한 '개늑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채널을 통해 일반인 출연자와 반려견을 계속해서 모집 중이다.

편성전략본부 C-밸류업팀 송수하

④, ⑤, ⑥ 채널A의 신규 리얼리티 예능 〈개와 늑대의 시간〉은 대한민국 대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의 복귀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생명나눔 현장 취재한 채널A 연속보도 '끝 또 다른 시작'

긴 기다림 끝에 만난 생명나눔의 현장… 지난달 '뉴스A' 통해 나흘간 방송

채널A는 〈끝 또 다른 시작〉의 첫 보도를 위해 100명이 넘는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난 두 아이의 아빠인 44세 장상빈 씨의 장기기증 현장에 함께했다. 건강했던 장 씨는 지난달 추락 사고로 뇌사에 빠졌고, 가족들은 숭고한 선택으로 장 씨를 보내줬다.

채널A 보도본부의 정책사회부 기자들이 장기기증 현장을 밀착 취재한 연속보도 시리즈 〈끝 또 다른 시작〉이 지난달 17일부터 나흘간 〈뉴스A〉를 통해 방송됐다. 채널A 기자들은 뇌사 판정의 현장부터 생명나눔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울림길' 모습까지 취재 카메라에 꼭꼭 담아냈다.

장기기증이라는 숭고한 선택을 보도하기로 한 뒤 지난 몇 달간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5월 말부터 뇌사자가 발생했다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연락을 받으면 일단 병원으로 출동하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취재가 급속도로 진전된 건 지난달 3일. 추락 사고로 뇌사 추정 상태가 된 44세 장상빈 씨의 가족이 장기기증 동의와 함께 방송 촬영도 승낙한 것이다.

가족 동의 후 곧바로 1차 뇌사 조사가 이뤄진 상태였고 2차 조사가 시작되는 지난달 5일부터 뇌사 판정 전 과정을 취재할 수 있었다. 장 씨는 간, 좌우 신장, 안구와 함께 인체 조직까지 기증해 총 104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마지막 길을 예우하는 '울림길'에서는 아내 김유진 씨가 어린 자녀들을 다독이며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았다. "아빠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일을 아빠가 해내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꼭 기억해."

취재팀은 장기 적출 수술, 적출한 장기를 이송하는 과정 취재뿐만 아니라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와 유가족들도 만났다. 유가족 중에는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알리는 강사가 된 분, 익명의 수혜자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리 아이가 어디에선가 건강하게 잘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다. 장기기증은 슬픈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이라는 걸 절감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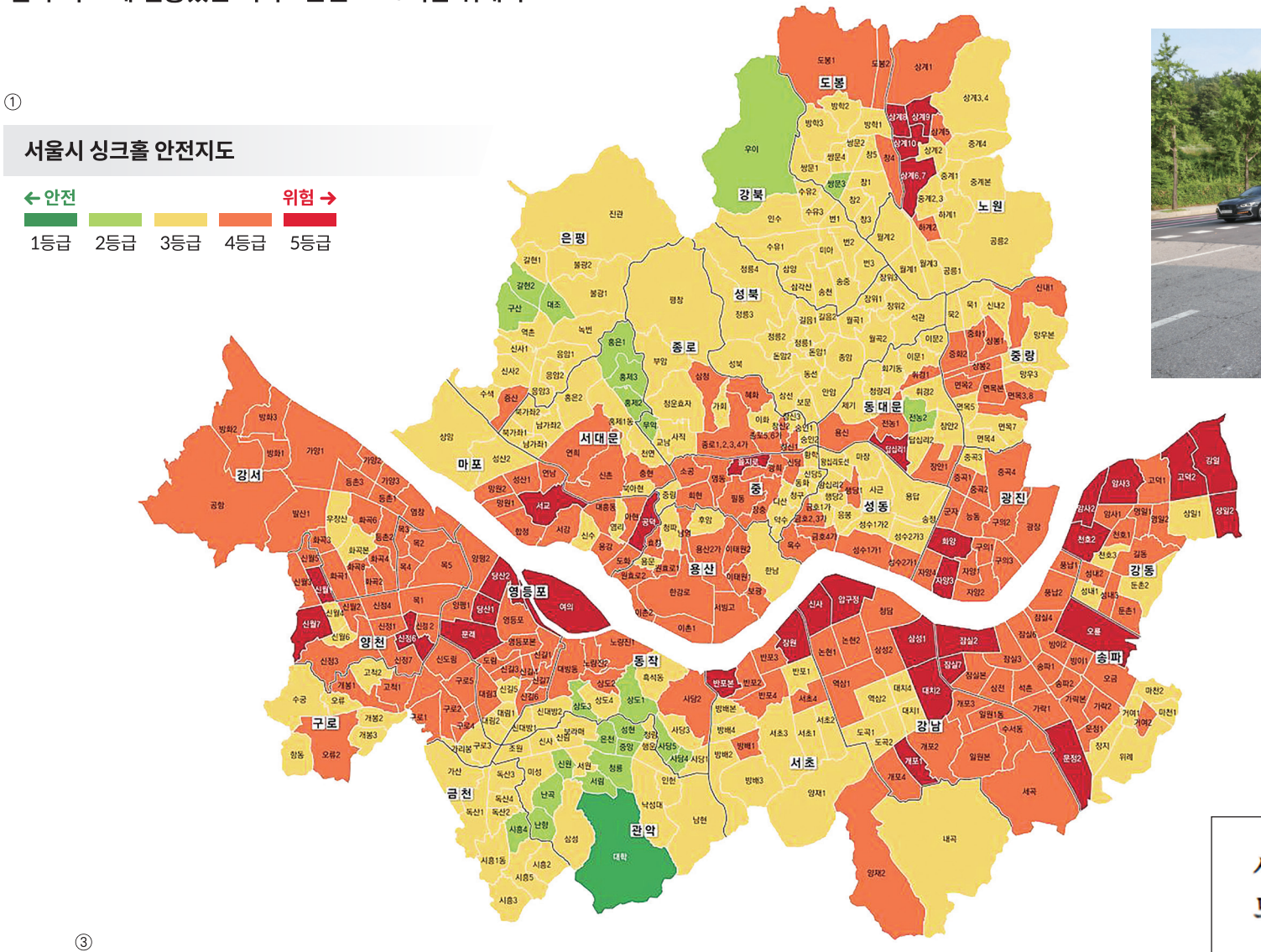
이번 취재를 계기로 기증등록신청을 해보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이미 2006년에 신청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 19년간 잊고 살았던 것이다. 장기기증 결심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다. 그런데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대기 사망자'는 계속 증가해 지난해 3096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번 장기기증 기획 보도를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의 벽이 조금이나마 허물어지기를 기대한다.

보도본부 정책사회부 이다해

민간 최초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 공개한 '크랙'

'킬러 팩트'에 집중했던 히어로콘텐츠 10기팀 취재기

①



②

③

④

⑤

사망 사고-깊이 5m 넘는 대형 싱크홀 모두 안전도 낮은 4, 5등급서 발생했다

4월 경기 지역의 한 지하철 굴착공사 현장을 찾아간 정부 안전 점검단이 터널의 단면을 살펴보고 있다. 이 현장에서는 벌파 작업도 진행 중이었다. 히어로콘텐츠팀

크랙 땅은 이미 경고를 보냈다

〈중〉 서울 싱크홀 사고 분석해 보니

굴착공사 안전관리 부실 등 '인재'

지하안전영향평가 실효성 지적도

동, 연희동, 강동구 명일2동 등 총 3건이었는데 인근에 굴착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깊이 6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던 마포구 합흥동, 깊이 5m 싱크홀이 생긴 송파구 석촌동은 4등급 지역이었다. 깊이 5m 싱크홀이 생긴 여의동은 5등급이었다. 원인은 모두 굴착공사 안전관리 부실, 되메우기 불량 등 인재(人災)였다.

대형 싱크홀을 포함한 전체 싱크홀은 서울에서 2018년 이후 총 132건 있었는데 90건

① 히어로콘텐츠팀이 한국지하안전협회 전문가들과 직접 제작한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 서울시의 안전지도 비공개로 불안감을 느끼던 시민들은 직접 SNS 등에서 동아일보의 안전지도를 활발히 공유했다. ② 지난달 26일 서울 강동구 명일2동의 싱크홀 사고 유가족이 사고 현장을 찾아 히어로팀이 제작한 안전지도를 바라보고 있다. ③, ④ 싱크홀 안전지도의 다양한 정보를 정리한 디지털 인터랙티브 페이지 화면. 지반, 지하수, 지하철 분포, 싱크홀 사고 이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싱크홀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⑤ 6월 25일자 본보 1면에 실린 '크랙' 시리즈 지면.

10기 히어로팀의 6개월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킬러 팩트를 좇는 모험'이다. 올해 1월 출범한 10기팀은 첫 3개월 간 기술 유출이라는 '하드 팩트'에 집중했다. 그런데 하드 팩트에 더해 히어로콘텐츠만의 탁월함을 고루 갖춘 킬러 팩트를 찾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 그렇게 10기팀은 히어로콘텐츠 역사상 최초로 3개월 동안 취재한 아이템을 덮기로 했다.

위기였다. 이미 4월이 지나고 있었고, 취재할 수 있는 시간은 반토막 났다. 그런데, 동시에 기회가 됐다. 3월 말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싱크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 이후 서울시의 지반침하 안전 지도 비공개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다.

공교롭게 10기팀이 초반에 논의했다가 접었던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지하 세계였다. 당시에는 독자들이 "내 일이구나" 하고 공감할 만한 포인트가 적어 보여 넘긴 주제였다. 하지만 명일동 사고를 계기로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이 커졌다. 꼭 필요한 취재라는 것이 팀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그렇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민간 최초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 공개

처음 히어로팀은 서울시가 비공개해 논란이 된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를 목표로 삼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킬러 팩트가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서울시 지도가 대형 싱크홀의 주된 원인인 굴착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 위험을 예측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알게 됐다. 동시에 이미 지반침하 위험도 파악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가 곳곳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서울시의 의지와 역량이 부족할 뿐, 산재한 데이터만 모아 분석해도 필요한 위험요소를 분석한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기획 취지에 공감한 한국지하안전협회 소속 전문가들이 지도 제작에 필요한 분석을 돕기로 했다. 2개월 이상 지도 제작에 매진했고, 지난달 24일부터 〈크랙: 땅은 이미 경고를 보냈다〉 시리즈를 통해 민간 최초로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를 공개했다.

'크랙'은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제작이 핵심인 만큼, 지면 절반을 지도 그래픽에 할애했다. 지면 제약으로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없는 한계는 인터랙티브 디지털 페이지로 극복했다. 인터랙티브 제작을 맡은 경영전략실 시넥스트팀 임상아 ND는 "팀원들이 가장 고민한 게 많은 정보를 어떻게 하면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였다"며 "디자인, 개발 단계에서 거듭 수정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부가적인 건 원하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숨겨 놓는 방법을 택했다"고 했다.

'안전지도' SNS에서 화제

보도 이후 '우리 동네는 안전할까'를 우려하던 시민들은 싱크홀 위험 지역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지도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자체적으로 활발히 공유했다. 몇몇 구청장과 시의원 등은 동아일보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상세히 분석한 자료를 주민들과 나누기도 했다. 서울시가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지만, 시민들은 안전지도를 공유하며 불안감이 아니라 '위험지역을 알고 사고를 예방하자'는 인식을 함께 공유한 것이다.

외부 전문가들도 히어로팀의 심도 깊은 취재에 대해 호평을 보냈다. 히어로팀에 자문을 준 박재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크랙' 시리즈는 시민 안전이라는 하드 이슈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좋은 기획"이라며 "신문 지면과 인터랙티브 기사의 인포그래픽이 특히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달부터는 11기 히어로팀이 새로 꾸려져 주제 선정에 몰두하고 있다. 11기팀은 올 하반기 중 보다 참신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또 한 번 세상에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7일 편집국 디지털랩 위은지 기자는 편집국 기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히어로콘텐츠 인터랙티브 기사 제작 노하우를 강의했다. 5년 간의 히어로콘텐츠 역사와 최근 인터랙티브 트렌드, 제작 전 과정에 대해 공유했다.

또 디지털랩은 히어로콘텐츠 인터랙티브 제작 과정을 정리한 가이드북도 편집국에 배포했다. 38쪽 분량의 가이드북에는 기획-디자인-개발 단계별 업무 설명, 히어로팀의 6개월 업무 진행 과정 등이 담겼다. 인터랙티브 기사 제작 당시 작성했던 기획안 등 실무 자료를 담아 제작 경험이 없는 기자들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편집국 스포츠부 임보미

편집국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위은지

3월 27일 서울 연세대 빌링슬리관에서 강사로 나선 구특교 경영전략실 기자가 히어로콘텐츠팀의 탐사보도 취재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구 기자는 7개월 간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 공사 문제를 파헤친 9기 히어로팀 '누락' 시리즈의 팀장을 맡았다.

연세대 '동아미디어그룹과 함께하는 저널리즘의 지평' 강의, 높은 호응 속 첫 학기 마무리

DAMG 실무자 11명 강사로 참여

"이걸 강의실에서 본다고요? 너무 신기해요!"

올해 2월 종영한 채널A 드라마 '체크인 한양'의 촬영 장면이 12분할 화면으로 강의실 스크린에 펼쳐지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졌다. 스튜디오D 정회욱 본부장이 '체크인 한양'의 실제 촬영본을 바탕으로 카메라별 구도를 짚어주자 학생들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5월 29일 연세대 빌링슬리관에서 열린 '동아미디어그룹과 함께하는 저널리즘의 지평-드라마PD가 다루는 이야기' 강의 현장이다. 수강생인 경영학부 4학년 류정민 학생은 "이론 중심 강의가 아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직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동아미디어그룹이 국내 언론사 최초로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와 공동 개설한 미디어 실무 강의가 학생들의 높은 호응 속에 첫 학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11주간 진행된 이번 강의는 ▲신문기자 ▲방송기자 ▲예능·드라마 PD 등 동아미디어그룹 실무자 11명이 강사로 참여했다.

수강생 60여 명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였다"며 강의 평가에서 평균 4.75점(5점 만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종강 설문조사 결과(응답자 59명) 학생들은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 주제로 ▲OTT 산업(19명) ▲드라마 PD(10명) ▲탐사보도 기자(10명)등을 꼽았다.

이번 강의를 듣고 "동아미디어그룹에 입사해 일하고 싶다"는 응답은 평균 4.64점에 달했다. 언론홍보영상학부 4학년 김채린 학생은 "현직 기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런 끈질김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동아미디어그룹은 입사 후에도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동아미디어그룹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사들 역시 이번 강의를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했다. 스튜디오E 1CP 신재호 PD는 "업계의 미래에 관한 질문이 많았는데, 진심을 담아 전할 수 있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또 채널A 뉴스비전 이호영 영상취재팀 차장은 "영상 장비 시연 중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몰입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미러클랩 서상희

동아닷컴 '트롯픽'-채널A '행복한 아침' 콜라보

현장 방청 기회 얻은 팬 "복권 당첨보다 기분 좋은 경험"

트롯픽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한 뒤 2일 채널A 〈행복한 아침〉에 출연한 가수 민수현과 팬들은 방송 종료 후 스튜디오에서 기념 촬영을 가졌다.

"트롯픽 팬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민수현이 채널A 〈행복한 아침〉에 떴다!"

2일 채널A 교양 프로그램 '행복한 아침' 방송엔 특별한 게스트가 출연했다. 주인공은 동아닷컴의 팬 참여형 방송 프로젝트 '픽 온 에어(Pick On Air)'에서 64%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트롯 가수 민수현. '최애 가수'가 등장하자 노란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온 20여 명의 팬들은 뜨겁게 환호했다.

'픽 온 에어'는 동아닷컴이 운영하는 트롯 가수 투표 플랫폼 트롯픽에서 이용자들을 위해 새로 선보인 방송 프로젝트다.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트롯 가수를 채널A '행복한 아침'에 초대해 무대를 진행하고, 가수의 팬들도 방송 현장에 초대해 가수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이벤트다.

이날 동아닷컴은 현장에 찾아온 팬들을 위해 우산과 포토카드, 열쇠고리 등 특별한 '굿즈'를 준비해 전달하기도 했다. 민수현은 "팬들의 사랑으로 투표에서 1위에 올라 출연한 방송이라 감회가 새로웠다"며 "특히 현장에서 아주 가깝게 팬들의 응원을 들을 수 있어서 더 특별했다"고 전했다.

최애 가수에 투표한 뒤 무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팬들은 "방청석 당첨이 복권 당첨보다도 기분이 좋았다"는 소감을 남겼다. 트롯픽 닉네임 '윤슬벼리'를 쓰는 팬은 "다른 음악방송 방청을 가보면 단순히 응원만 하고 끝나는 일이 많았는데, 최애 가수가 진행자들과 토크를 나누는 과정까지 모두 지켜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했다.

팬들의 투표가 방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동아닷컴과 채널A는 "더 많은 팬들이 트롯픽을 통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최애 가수의 무대를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행복한 아침'에 '픽 온 에어' 1위 가수 출연을 정례화 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비즈니스본부 이노웍스팀 유미선

채널A 대학생 시청자평가단 '청년 스쿼드', 2025년 하반기 활동 시작

청년 스쿼드 10기와 〈티처스2〉 제작진 간담회

6월 26일 〈탐정들의 영업비밀〉 녹화장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현장을 찾았다. 젊은 시청자의 시선과 비평, 의견을 전하는 대학생 시청자평가단 '채널A 청년 스쿼드'들이 그 주인공.

'청년 스쿼드' 10기 대학생들은 패널들의 열띤 토크와 VCR 용 모니터를 연신 번갈아 보며 눈을 떼지 못했다. 박민규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3학년은 "방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까지 이렇게 많은 작업이 있는 줄 몰랐다"고 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채널A 청년 스쿼드는 대학 재·휴학생으로 구성되며,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마당〉 제작에 참여해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비평과 개선 의견을 전달한다. 또 직접 시청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제작진과의 간담회 시간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

10기 대학생들은 5월에는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2〉를 제작 중인 스튜디오E 김승훈 2CP, 〈하트페어링〉을 연출한 스튜디오E 1CP의 박철환 PD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프로그램 모니터 의견뿐 아니라 시청자 입장에서 던지는 깊이 있는 질문과 평가가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작진들은 "대면을 통해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운이 났다. 많은 에너지를 받아 간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심의실 심의2팀 조은영

특파원 소식

유근형 파리 특파원 현지 부임

편집국 유근형 차장이 신임 파리 특파원으로 부임해 14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채널A 특파원을 겸하는 유 특파원은 조은아 특파원과 임무를 교대했다. 임기는 3년.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김진현 / **채널A**
스튜디오E

① 우리 회사 〈채널A〉, 나의 팀 〈스튜디오E〉 승승장구 하는 길에 걸림돌이 아닌 하나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② 올 여름에 날씨는 어떨까? 장마가 길어져 촬영에 지장 주면 안되는데, 매일이 날씨 생각.